

#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 물밑 경쟁 치열

### 광주 김동찬·김용집·반재신, 전남 이장석·이용재·김기태 채비 나뉘먹기식 구태 관행서 벗어나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로 뽑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지방선거 이후 의장단 선임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시·도의회는 세력을 규합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진 구태 관행에서 벗어나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5일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시·도당에 보내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적·자율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되, 향후-금품 선거는 해당행위이기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방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광주시의회는 "제7대 마지막 임시회를 오는 20일 연 뒤 새로 당선된 제8대 시의회 의원들이 오는 28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첫 만남을 갖고 제8대 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차기 의장 선거에 뛰어들어 재선 의원인 김동찬·김용집·반재신 의원도 18일 첫 회동을 하는 등 의장 선거가 본격화 했다. 이들 의원은 "8대 의회에 초선 의원이 20명에 달한다"며 "개원 전 세 차례 정도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의장 선거와 관련해선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과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사전에 내정해 함께 선거 운동을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기로 했다"며 "절제한 후보자 토론을 거친 뒤 모든 의원의 선거를 통해 의장을 뽑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선 의원은 20명의 초선 의원들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공론화 한 뒤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에는 이들 3명의 재선 의원 등 4명 가량의 의원이 물밑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22일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전남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원구성, 상임위 배정 등에 대해 설명한다.

11대 전남도의회는 의원 정수 58명 가운데 민주당 54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이 입성한다. 선수별로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 배지를 단 초선이 41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재선 12명(20.68%), 3선 5명(8.62%) 등이다.

의장 선거에는 3선에 성공한 이장석(영광2) 현 부의장과 이용재(광양1) 의원, 재선 의원이 되는 김기태(순천1)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이 물밑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의장은 농수산위원장과 부의장 경력을 앞세우고 있고, 이 의원은 지난 10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에 확정되자 일찌감치 의장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에서는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합의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재선 도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의장 선거는 금품·향응으로 혼탁한

게 사실이었다"며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취지에 걸맞게 합의를 통해 의장단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남도의회와 교류 중인 경북도의회는 국회처럼 의정 경연, 선수 중심으로 합의를 통해 의장단을 구성하고 있다"며 "전남도의회도 의장단 선출 관례를 만들어 의회의 기풍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1대 전남도의회 원구성(의장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7)은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상임위를 배정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도 철통 방어 훈련** 해군과 해병대가 18일 도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도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도도 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도도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해군, 해경, 공군 등이 참가하는 도도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사 방침 어긴 해남군수 주의 조치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통보 감봉 직원 직위 전보 안해

해남군수가 인사 방침을 따르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 처분한 뒤 다른 직위로 전보조치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해남군민 370여명이 '해남군청이 징계받은 직원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최근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 해남군수는 2016년과 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감봉 이상 징계자는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조치한다는 방침

을 넣었다. 하지만 해남군수는 2016년과 2017년 징계처분을 받은 5명을 전보조치하고, 7명에 대해서는 전보시키지 않아 공정하지 못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민원을 유발했다며 감사원은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고천안 자연생태공원 갈대담방로 공사 시 부적합한 공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부적격 강관파일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와 '두륜산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시 불필요한 보도로 고계 및 태양광블록 설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해남군청 공무원이 농로포장·마을쉼터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며 종결 처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 올 첫 확진 환자 발생

전남도가 인전에서 올 들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10월경 발생하기 시작해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어패류를 날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데 바닷물에 접촉하면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저혈압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발진, 부종 등 피부 병변이 주로 하지에 나타난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은 50%로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여수 사포부두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최초 검출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를 시군에 전달해 고위험자 관리 및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 등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를 요청했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구직청년 교통비 5개월간 30만원 지급

### 오늘 대상자 1530명 확정

광주시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교통비 30만원을 5개월 동안 지급한다.

광주시는 18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1530명을 19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6만원씩 총 30만원을 모바일쿠폰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5일간 시청 1층 민원실 열린소통창구에서 대중교통 전용카드인 '청년당당카드'를 배부할 예정이다.

대상 청년은 쿠폰을 활용해 편의점에서 직접 교통비를 충전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대학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총 2516명의 지역 청년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자체가 대학생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직접 지원에 나선 사례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태교·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남 '치유의 숲' 인기

### 화순 만연산 개장 1년만에 31만여명 다녀가

### 장흥 우드랜드·나주 산림자연연구소 등도 방문객 폭적

전남지역 '치유의 숲'이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장흥읍 우드랜드 치유의 숲, 나주 산포면 전남산림자연연구소의 '빛가람 치유의 숲'이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은 지난해 7월 임시 개장 이후 현재까지 31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118억 원을 들여 120ha 규모인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구와 연계된다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연산 치유의 숲에서는 ▲임신부와 태아와의 교감 형성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 ▲노년의 치매 예방

을 위한 일반형 프로그램 ▲아토피 및 알코올 중독 환우를 위한 특화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오강연결길과 치유숲길이 약 6.5km, 건강명상숲과 숲속쉼터가 55ha 조성돼 참가자들은 산림치유 지도사의 지도에 따라 대상별·질병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입구에 위치한 치유센터에서는 스트레스와 혈관 검사, 근력과 혈압 측정, 원적외선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은 나무와 꽃, 향기, 물과 바

람, 음이온 등 자연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심신의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 조성된 숲이다.

전남도는 올해 광양 옥룡면 '백운산 치유의 숲'과 고흥 영남면 '팔영산 치유의 숲' 2개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남지역에 총 9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림을 활용한 치유를 경험토록 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전남지역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숲 태교, 치매 예방, 비만 완화, 아로마테라피, 주변 산촌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062-364-8800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땅만 빌려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